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국어 독서 1주 부록

# 서성수 국어 독서3

## 1. 2016 9월 모의고사1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 산물(에서 나오는 것/ ex, 특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특수 용어, 콘크리트에서 모래나 자갈 등)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 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 m가 넘는 ㉡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콘크리트에서 결합재(결합시켜주는 '물질')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특수 용어, 물과 시멘트가 만났을 때의 화학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 하기에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굳게, 굳게 하면서 강도를 높이면)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강한 정도,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와 밀도(빽빽한 정도, 분자가 얼마나 가득 차있나)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수화 반응

-시멘트중의 물과 만나면 굳어지는(수경성) 혼합물과 물과의 화학 반응

-이런 전문 적인 용어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음. 이때는 앞뒤의 맥락에 따라 "수화 반응은 결국 결합과 굳어짐을 이끄는 반응이구나"로 이해하기

### \* 밀도

-밀도= 질량/ 부피

-같은 부피당 얼마나 많은 질량이 들어있는지 즉 얼마나 빽빽한지를 보여줌 글에서는 같은 공간에 분자가 몇 개인지로 이해하면 편함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큰 물질은 위로 뜬

-밀도의 차이는 소리나 빛 같은 파동의 진행에도 영향

### -명동길 vs 시골길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튼튼)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또한 압

# 서성수 국어 독서3

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형태가 바뀌는)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지점을 ㉠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 \* 손바닥 독해 개념

더욱- 이전의 대상과 이후의 대상 간의 비교 대조가 만들어 집& 구체적 설명의 제시

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의 강조. 비교 대조의 구조와 연결

## \* 포아송 비

- 길이가 늘어난 것에 대한 높이의 변화의 비= 높이 변화량(율)/지름 변화량(율)

- 전문적 개념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음. 단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강도(강한 정도,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가 높고 지지력(지지하는 힘, 무게 등을 버티

는 힘)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코르뷔지에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다.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무게, 외부 힘)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유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향해하는 기선의 갑판(배위)에서 있는 듯하다.

## \* 강도

- 강한 정도로 외부적 힘에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

-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와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함/ 다이아몬드 VS 나무

- 제대로 된 용어 파악과 구분을 하지 않고 글을 읽다가 정보가 꼬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연습할 때 비슷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글을 읽을 때도 구분해서 읽어주기

# 서성수 국어 독서3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앞의 개념을 활용해서 읽어주기, 잡아 당기는 힘에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누르는 힘)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성(버티는 정도)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 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 \*인장 강도

-인장력 즉 잡아 당기는 힘에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

-전문적인 용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등장한 용어라면 쉽게 이해한대로 바꿔가면서 글을 읽어야 함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힘)이 되어 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

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영향을 주고 받는)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 결론에 대한 집중

- 결론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 세부 정보를 놓치지 않는 연습이 중요

## EX) 2016 수능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전통적 과학적 지식의 후보인 가설+ 기존의 지식과 가정 등 모든 지식이 검증의 대상 -> 예측이 틀려도 가설 말고 다른 중심부 지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서성수 국어 독서3

## 2. 2016 9월 모의 평가2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근원, 기초)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분자가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열로 작동되는 기관)의 열효율(열 "대비 한 일", 한 일/열) 문제였다.

### \*질량

- 과학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밀도와 부피 중력과 관련

- 쉽게 분자가 얼마나 있나로 고민

### \* 실제

- 실체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이자 변치 않는 근원과 연결됨

- 많은 경우 그냥 대상을 나타내기도 함

- 실체는 외적인 모습과 형상과는 다르게 쉽게 변화하지 않음

### \* 효율

- A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결과를 만드는지와 관련

- 열효율이라면 열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지와 연관

- 어렵게 느껴지는 수식& 상관 관계와 관련이 있기에 집중

### \* 독해 개념

- 서론에서 구조 독해와 추론 독해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 함

- 열기관과 열효율이 칼로릭과 관계되어 전개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 열이 이동한다고 했기에 그렇다면 일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가 나올 것!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열이 있는 곳)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물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가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가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 \* 이해의 어려움

-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유추를 통해 설명했기에 여전히 어려울 수 있음

- 이때는 정보 그대로 남기는 연습이 필요함

- 높이차: 온도차

한편 1840년대에 줄(Joule)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

# 서성수 국어 독서3

는 실험을 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특수 용어, 열과 일 사이의 관계)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calorie)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 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 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가치가 같음)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 \* 열의 일당량

- 열과 역학적인 일 사이의 관계를 열의 일당량으로 표현

- 전문적인 용어이기에 뒤의 정의나 제대로 집중하기

## \* 등가성

- 가치가 같다는 의미. 주로 인문 사회 지문에서 교환과 연결되어 등장한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

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내뿜으면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법칙에 ㉡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열의 실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 \* 방출

- 열을 내뿜는다

- 열도 내고 일도 하기에 열과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고 열이 감소하는 만큼 일한다"는 에너지 보존과는 다름

-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보로만 남기기

## \* 카르노의 이론

- 앞서 제시된 개념이기에 전문적인 용어라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함

- 열의 실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 열과 한 일의 비는 온도차에 기반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이 열로 전환(바뀔, 열에너지가 줄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

# 서성수 국어 독서3

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일 E/열E)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 \* 독해 팁

-달리, 아니라: 뒷 부분에 집중. 비교 대조와 연결

-결론의 세부 정보를 놓치지 말기: 방향성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음. 열 에너지가 줄어들 때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 \* 읽기 자료

-열역학 제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일을 하게 됨. 즉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만큼 다른 에너지의 값이 변화. 총량이 같은 것.

-열역학 제 2법칙: 무질서도(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변화. 뜨거운 물+ 얼음-> 미지근한 물

# 서성수 국어 독서3

## 3. 2016 9월 모평3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지는 사람, 객체의 반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행동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존재)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등록하고 인정 받아야)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 \* 주체

- 주체는 쉽게 ~ 가지거나 행위 하는 사람
- 주체는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행위 하는 사람으로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나 소유의 대상이 필요 이것이 객체

-주체와 객체는 대립적으로 같이 나옴

### \* 채권& 채무

- 채권은 급부 즉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급부 즉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

### \* 실체

- 실체는 기초이자 근원. 그저 대상으로도 사용됨

- 외적인 모습은 빨리 그리고 많이 바뀌어도 실체는 비교적 안정적

### \* 독해 팁

- 단체와 사단 법인 등 유사한 용어의 등장: 구분해야 함. 단체가 독자적 실체로 역할하면 사단성을 획득. 사단이 따로 법적으로 등록하고 인정 받아야 사단 법인이 되고 법인격을 인정받음

- 즉 비교 대조 등 복잡한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함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법적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수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내서)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넘겨 주기)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 서성수 국어 독서3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경계가 무너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독립적으로 행동하는)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 \* 모호해진다

- 앞서 글에서는 단체가 가지는 법인격 과 개인의 권리능력을 구분함 즉 단체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구별

- 그러나 1인 법인이 생기며 이 같은 경계가 무너짐

- 이 경계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능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결정하고 선택하는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뽑히는) 기관(그 자체가 하나의 단체)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뽑기)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제대로 역할 하지 못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

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함부로 사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 \* 기관

- 기관은 단체에 속한 것으로 그 행위가 단체나 법인의 행동으로 여겨지는 개인이나 집단

## \* 이해

- 앞 뒤의 내용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자체가 법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의무 수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이것이 피해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야 함

## \* 독해 스킬

만- 조건을 한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중요. 세부 정보까지 놓치지 쉬움

# 서성수 국어 독서3

## 4. 2016 9월 모의 평가4

### 큰 보기처럼 생각하기

### 문학 용어에 익숙해지기!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비현실적)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이야기)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이야기 구조, 사건과 갈등의 연속)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연결되게).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 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뻘한 특성)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고유한 특징) 보인다.

### \* 소설에 대한 이해

- 신화와 소설: 믿으라고 요구하는 신화의 세계에서 소설의 세계로의 변화는 혁명. 이는 수용과 비현실의 세계에서 인과 관계와 현실성의 세계로의 변화

- 고전 소설은 소설이지만 신화적인 특성을 보유

- 소설: 있을 법한 사건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해 서술한 이야기로 인생의 진리를 보여줌- 현실적인 인물과 배경/ 서술 방식/ 인과적인 서사& 갈등의 연속/ 주제

### \*기이한 사건

-비현실적 사건. 마법천자문. 고전 소설의 특징

### \*독해의 팁

-서도. 달리. 이지만: 뒤가 조금 더 중요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구전 되어 오는 이야기, 도깨비)도 영향을 끼쳤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소설의 갈래적(장르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슬픔) 빠져 있는 존재이다.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 (다른 세계)를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는 내면성이다.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셋째는 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부정적 현실, 인물의 모든 행위를 방해)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부정 현실 부정 인식) 보여 줄 뿐이다.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서성수 국어 독서3

공은 서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다.

## \* 이계

- 고전의 전기성을 만드는 핵심

- 천상계, 수중계

- 봉래산, 선관 신녀, 상제

## \*비극

- 다양한 의미/NOT IN 수능

- 비극적- 부정 현실 부정 인식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자리잡고 전개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조신」, 「김현감호」, 「최치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 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환기되는(보여지는/ 불러일으키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띤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

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뛰어넘은)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되었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이원적 공간 구도는(구분되는 공간의 구도는) 적강한(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간)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으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

## \*환기되는

- 상기 되는/ 보여 지는/ 불러 일으켜 지는 등으로 해석

## \*소설의 정리- 나중에

- 현실적인 이야기

- 현실적인 인물과 배경을 바탕으로 자아와 세계가 갈등

- 이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연속됨

- 이계가 자주 등장하는 고전에서는 천상계와 지상계처럼 구분되는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공간이 이동이 자주 이루어 짐